통권 58호

www.afterschool.go.kr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학교 온라인 Newsletter

2017 5월호

발행인 : 김재춘 | 편집인 : 박승재 | 편집담당 : 전보미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특별기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과후학교

02 전문가 칼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 통합방과후교육센터

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명장육성! 명품취업! 산업수요 맞춤형 충북반도체고 방과후학교

04 돌봄교실 이야기
어울림과 소통의 실천 서울한서초등학교 돌봄교실

05 방과후학교 소식
-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제1차 방과후학교 발전포럼 및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회
- 방과후학교 이슈페이퍼 5종 발간(예정)

06 알림
- 뉴스레터 원고모집

구독 신청 방법

2017년부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격월 5일에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Click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과후학교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소장 | 박 승 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이나 추세적인 변화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대는 사라지고,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의 변혁이 주도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빠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사회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그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정책의 구상 역시 시대를 앞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급속한 사회변화에 교육이 뒤쳐져 있고, 산업화 시대에 갖춰진 표준화 일색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 단기적인 처방 위주로 대응이 이뤄지다보니 산업화시대에 고착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낙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은 그 역할을 다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체제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획일성과 경직성, 입시위주교육, 지나친 경쟁으로 가로막혀 있다. 이미 초중등교육부터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체계 등에서 지식일변도, 획일성, 비연계성, 경직성, 교육과 평가의 부조화 문제를 안고 있다. Helga Nowotny의 얘기처럼 사회는 역사적으로 'Mode I'에서 'Mode II'로 넘어왔다. 이 두 사회는 작동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Mode II'의 사회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사회이며, 불확실성,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의의 변화 등으로 특징되는 복잡성이 증대된 사회이다. 'Mode I'에서는 지식이 개별 분과 과학의 헤게모니 속에서 내부적 위계질서에 의해 좌우되었던 반면, 'Mode II'에서는 지식이 사회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응용 지향적이고 분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요즘 우리사회가 강조하고 얘기하는 융합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과연 어떤 미래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미래를 탐구하는 것은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다양한 미래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Preferred Future)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미래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그리는 교육의 미래상 즉, 비전을 찾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언급된 용어들을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문명사적 전환, 지능정보화 사회, 인공지능, 미래교육, 교육혁신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미래의 새로운 문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는 관점을 넘어 기술과 인간이 협업하고, 이를 넘어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는 사회로, 기존의 기술혁신으로 형성된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물론, 과학기술과 공존하고 이를 해석, 성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정신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방안이 교육활동과 학교체제, 교육의 핵심가치에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그 단초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찾고자 한다. 방과후학교로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롭고, 재미있고, 진취적인 미래교육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교사회에서 변화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의 걸림돌은 제도적인 것과 운용상의 어려움이다. 이들은 법령과 예산의 물꼬를 터주면, 어느 순간 해빙된 얼음처럼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금 조명받는 방과후학교를 생각해 본다.

(이 글은 사단법인 미래학회 "지능정보사회대비 사회정책방안 연구"에서 필자가 집필한 내용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산 통합방과후교육센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전 승 순

부산방과후학교는 문화 시설 및 학원 시설의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학교에 문화적·예술적 체험이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가 심한 지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교육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2016년 3만8천여개에 달하는 방과후학교 강좌가 개설되었고, 전체 학생의 77.4%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것와 더불어, 정규교육과정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안팎의 노력들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은 정규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 업무과중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강좌 개설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향후 방과후학교의 발전적인 방향 전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의체 통합 운영으로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교육청의 통합 운영 협의체 구축

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교육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환경 열악 지역의 문화 소외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학교의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 학교업무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첫째,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교육청, 학교와 MOU 체결, 역할 및 운영 관리를 명시화하여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를 공동 운영하여 방과후학교의 업무를 경감한다. 둘째, 소질·적성 계발 및 토요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문·예·체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지역사회에서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창의·인성·소질·적성계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해당 기관으로 찾아가 지역사회의 시설과 공간에서 참여한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희망과 지역·학교의 여건 등을 반영할 뿐 아니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셋째, 운영 주체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기관, 학교, 교육청의 동반 성장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 자원봉사,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점차 통합방과후교육센터에서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를 경감한다.

통합방과후교육센터 학생안전관리에 중점 예산 지원

통합방과후교육센터 학생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예산을 중점 지원한다. 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학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차량운행과 관련된 안전교육 및 학생안전보험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학교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관리 매니저를 채용하여 운영한다. 또한 교육청, 학교, 센터 간 학생 안전 대책 강화 협의회를 정례화하며, 운행 차량 운전자와 안전 매니저의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안전관리 예산 지원 내역 : 센터 당 연간 33,000천원 지원>

순서	영역	내용
1	차량 운행 경비	• 차량 대여 등 운행 경비
2	안전 도우미 인건비	• 운행차량 동승자 및 안전도우미 인건비
3	프로그램 운영비	• 개설 어려운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

<운영기관(주체) 및 주관>

운영 주관	운영 주체	운영 강좌	운영 학교
부산시 교육청	서부 교육 지원청	영도 문화원	항공 드론, 생태체험 강좌 28개, 토요강좌 11개	영도지역 초 11교
	북부 교육 지원청	금곡 청소년 수련관	수영 강좌 4개	금곡 지역 초 6교
		사상 청소년 수련관	뮤지컬, 수영, 토요강좌 등 5개	모라, 사상 지역 초 9교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 추진 현황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서부교육지원청(영도지구), 북부교육지원청(금곡지구, 사상지구), 영도문화원, 사상청소년수련관, 금곡청소년수련관에 개소하였다.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 인근의 26개 학교 학생들이 창의·인성·소질·적성계발 등 4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수영, 방송댄스, 미디어, 뮤지컬, 자연탐구, 미래과학, 지역역사, 진로체험, 드론 등 다양한 인문, 교양, 취미, 적성계발 프로그램이다. 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수요자 부담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자유수강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교육청은 학생안전관리 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 학부모, 운영 기관,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만족도 제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 향후 계획

부산통합방과후교육센터는 기관에서 자체 편성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합방과후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하며, 학교, 학생의 수요 분석을 통해 우수 교육 콘텐츠 개발 협의체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대 지역 재송, 반여지구와 동래지역의 금사, 금정지구, 동구 수정, 초량 지역 통합방과후교육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참여 학교는 센터 중심으로 4~5개교를 묶어 운영함으로써 차량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토요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로의 확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방과후학교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명장육성! 명품취업! 산업수요 맞춤형 충북반도체고 방과후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교사 | 정 찬 효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방과후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는 충북 음성읍, 금왕읍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반도체과 5개 학급으로 구성된 315명의 학생과 65명의 교직원이 생활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반도체 유지·보수 기술자를 목표로 반도체 및 관련 회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명장육성, 명품취업」으로 영-마이스터(Young Meister) 육성 트랙(Track)을 체계화하여 정규교과 외에 인성, 직업기초능력, 창의·융합, 전문기술 등 학생들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독창성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맞춤형 직무교육 후 학생들의 수강 이력을 관리하고, 진로상담을 통해 취업의 만족도 및 취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과후활동 활성화 기반 조건 충족

원거리 통학생이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16:50~21:10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산업체로부터 장비와 강사를 기부받아 방과후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학교의 고민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면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우리학교만의 독특한 방과후학교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방과후학교 활동 그 첫걸음은 입학 날부터 7일간 진행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하는 특별학습주간을 이용한 충분한 안내에서 시작된다.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학년별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직업 기초 능력, 전공 자격, 외국어 능력, 정보화 자격 등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 목표를 홍보하고 학년별로 학생들이 갖춰야할 능력들을 안내하며 방과후학교 수강에 따른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출발은 단계적인 목표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활동에 참여한다.

방과후학교 학점은행제, 필수와 선택의 다양한 강좌 개설

방과후학교 활동의 많은 외부강사를 포함하여 모든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시작 전, 중간, 종강 후에 학교 교육목표와 학생들 관리요령, 평가 지침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 각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본적인 방침을 지키면서 자율적인 활동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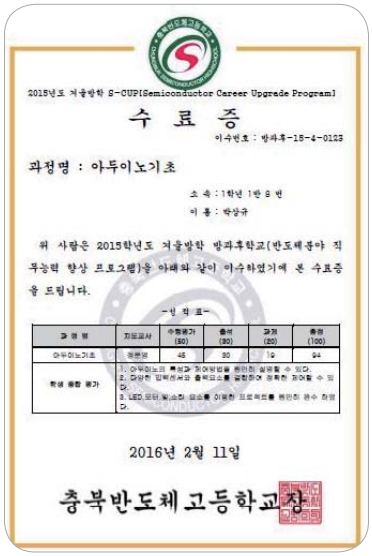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장과정을 기록하여 2014년부터 수강자의 개인 평가가 쓰인 방과후학교 수료증을 수여하며 2015년부터는 대학이나 교원연수기관의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명장육성! 명품취업! 산업수요 맞춤형 방과후 직무프로그램

- 명장육성 프로그램 : 직업기초, 예체능, 인문학 등 12종 51개 강좌
- 명품취업 프로그램 : 발명, 전문 기술, 인턴십 등 25종 57개 강좌
- 우수사례 : 학점등록제 운영, 교육수료증 발급, 취업 포트폴리오 활용

<연간 방과후학교 학점 운영 계획과 수료증>

구분	1학기 (18주)		여름방학 (2주)		2학기 (16주)		겨울방학 (2주)		계 (38주)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1학년	2	4		4	2	2		2	16
2학년	2	2		4	2	2		2	14
3학년	2	2		4		2			10
계	6	8		12	4	6		4	40



2015년도 겨울방학 S-CUP(Semiconductor Career Upgrade Program)

수 료 증

이수번호 : 방과후-15-4-0123

과정명 : 아두이노기초

소 속 : 1학년 1반 8 번
이 름 : 박상규

위 사람은 2015학년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반도체분야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였기에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아 래-

과정명	자료교사	수행평가 (50)	출석 (30)	과제 (20)	총점 (100)
아두이노기초	정문성	45	30	19	94
학생 활동 평가	1. 아두이노의 특성과 제어방법을 원만히 설명할 수 있다. 2. 다양한 입력센서와 출력모드를 설정하여 정확한 제어할 수 있다. 3. LED 모터 복수의 모드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원만히 완수 하였다.				

2016년 2월 11일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학점은행제 시스템은 강좌 시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학년별 최저 이수학점, 수료기준, 학생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평가는 출결, 수행평가, 과제의 세 항목으로 실시하고 종합의견란에는 산업체 인사가 보았을 때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습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을 할 수 있다.'는 식의 긍정적 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은 분기별로 수강한 강좌의 수료증을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관리하며 취업을 위한 스펙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동시에 방과후학교 활동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특히 필수와 선택 강좌로 전공 분야 18강좌, 외국어 분야 6강좌, 정보 분야 3강좌, 직업기초 분야 5강좌 등 총 32강좌를 개설하여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필수 강좌인 토익 외에 영어회화, 중국어능력 1,2 등급, 2,3 등급, 일본어 능력 1,2 등급, 2,3등급의 각 강좌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본교 일부 학생은 1학년이 끝나면 취업할 회사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2학년에 결정되므로 3학년부터는 기업이나 유사 직무에 따라 반을 편성·교육하는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강좌를 연속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수강하는 특징이 있다.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게 되다

우리 학교의 방과후학교 교육목표인 산업체 수요 맞춤형 강좌는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업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기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리고 수강 강좌의 수료증과 우수학생 표창의 보상 방식은 원하는 강좌를 꼭 수강하고 싶다며 수강 우선권을 달라고 찾아오는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2017 vol.5월호 (통권 58호)

2015년 학점은행제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한 방과후학교 수료 학점과 성취수준은 누적되어 취업 담당자와 담임 선생님에게 진로 정보로 제공된다. 그리하여 산업체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동의 교육성과는 취업의 현장에서 적응력과 실무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수 기업으로 학생 100%가 3년 연속 취업하였고, 2016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STK)에 본교 학생이 면접 및 실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하여 반도체 마이스터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 또한 본교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 만족도가 우수하여 4년 연속 90%이상, 평균 95%의 높은 취업 유지율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활동에는 발명, 창업, 예체능, 숙련기술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최우수상, 특허 출원 8건,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교생이 주말 및 방학 중에 농촌 일손 돕기와 양로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로서 바른 인성을 실천하며 쌓아가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전교직원과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는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이다.

직업기초 및 인성 함양 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화상 영어교육

택견 수련

동아리 활동

창의·융합 프로그램

드론

전공 프로젝트

전공 프로젝트

발명 특허증

전문기술 프로그램

기업 맞춤반

SMSCP

전자기기 실기

생산 자동화 실기

어울림과 소통의 실천 서울한서초등학교 돌봄교실

서울한서초등학교 돌봄전담사 | 김 창 희

초등돌봄교실의 아이들은 계절마다 힘을 주는 에너지 원천과도 같다. 봄에는 추운 냉기를 뚫고 올라온 새싹들처럼 강인한 생명력과 경이로움이, 여름에는 맑은 냇가의 어린 물고기들처럼 꼬물꼬물 어울리는 모습에 정겨움과 귀여움이 있다. 또한 가을에는 파란하늘에 손도장 찍는 단풍들처럼 우리 아이들의 개구진 모습에 늘 웃음이 있으며, 겨울에는 갓 내린 눈송이 같은 깨끗함과 감싸주고 싶은 가냘픔이 그렇다.

아마도 11년 째 초등돌봄교실에서 한 자리를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의 원천 덕분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래서인지 어딜 가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랑교실 아이들이 생각나서 빙긋 웃는다.

하지만 매일의 동반자이며 나의 에너지 원천인 아이들이 항상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2학년 아이들은 늘 자기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왕자나 공주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 잦은 다툼 안에서 자기의 잘못은 찾을 수 없고, 유아기에서 갓 벗어난 아이들은 학교와 교실이 호기심 천국인데다가 신체적 발달로 잠시도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의 선생님은 늘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게다가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 어릴 때부터 유치원의 종일반에서 자라다시피한 아이들이 늘 피곤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결핍을 보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돌봄교실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이러한 질문을 반복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에서의 엄마가 되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6년 학교의 첫 돌봄전담사로서 교실을 단장하고 남다른 각오로 아이들을 맞이했지만, 나의 기대와는 달리 초등돌봄교실은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 '돌봄교실에는 학급에서 말썽쟁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 모여 있다', '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들이라서 함께 어울리게 하고 싶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을 편견어린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한 마디 말이 가시 돋친 말이 되어 자라나는 새싹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따라서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인식은 돌봄선생님인 나에게는 해결해야할 과제이자 도전이 되었다.

04 돌봄교실 이야기

2017 vol.5월호 (통권 58호)

사랑받고 있음을 몰라서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어울릴 줄 모르는 아이, 나쁜 행동을 통해서라도 관심 받고 싶은 아이, 어른이라는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 입을 닫고 소통을 하지 않는 아이...

이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믿을만하구나, 좋은 사람들도 많구나, 사람을 통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즐거우니까 자꾸 어울리고 얘기도 하고 내 것도 나눠주고 싶고, 이상하다 싶었던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다. 작게는 선생님으로서 교육의 실천이자 크게는 사랑의 힘을 통해 사람됨을 실천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각오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선생님인 나부터 아이들을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먼저 가정방문을 갔는데, 부모님을 뵙고 어려운 사정을 보고 들으니 아이들의 행동과 심정이 더욱 이해가 갔다. 생계가 힘든 상황이라 공원에도 못 데려간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몇 번의 주말동안 개인적으로 소풍을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나 역차별 문제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개별적으로 비공식적인 돌봄은 삼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울림과 소통의 방향을 조금씩 넓혀 나갔다. 어르신 보조교사의 활용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은빛선생님이라는 명칭으로 오신 보조선생님 중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편지와 선물을 주시며 직접 그림 그림동화를 들려주시던 선생님을 잊을 수 없다. 내 손자, 손녀처럼 아끼고 듬뿍 사랑해 주셔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했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오카리나, 전통예절, 텃밭 가꾸미 등 어르신 특기 봉사자 선생님을 지금도 매년 모시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받은 사랑을 어르신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매년 어버이날이면 동네 노인정과 시니어센터를 방문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공연을 해드리고 있으며, 연말에는 독거노인 겨울나기 돕기 및 동절기 대비 물품과 편지를 전해 드리고 있다.

노인정 공연

실버안전지도

어르신 전통예절 수업

어르신 텃밭가꾸기 수업

작년부터는 돌봄교실에 대학생이 동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있다. 인근 대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마치 친형제자매처럼 대해 주며, 학교에서나 집에서의 일상을 나누고 아이들이 짓궂은 장난을 쳐도 찌푸리지 않고 함께 놀아준다. 학업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대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나에게도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생긴 것처럼 든든하고 돌봄교실 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친구들과의 어울림과 소통은 너무 중요하다.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또다른 용기이고 모험과도 같은 의미있는 경험이 된다.

이웃과 돌봄교실 아이들의 소통을 위해서 돌봄담당 부장님과 함께 지역의 돌봄 관련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청소년아카데미 등의 시설장님들을 직접 뵙고 면담하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돌봄교실 이용 현황과 사정을 나누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그 인연을 계기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지역돌봄협의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며,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을 돌봄교실

04 돌봄교실 이야기

2017 vol.5월호 (통권 58호)

방학 캠프에 초대하고 방과후교실 친구들을 초대해서 뮤지컬 관람과 영화 관람도 함께 하였다. 이럴 때면, 아이들은 다른 기관의 친구들과의 낯설음은 잠시이고 금방 친해진다. 까르르하며 함께 놀다가 헤어질 때 서운해 하는 모습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회적 역량을 순수하게 키워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

학기 말에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근 초등돌봄교실 두 곳과 함께 어울림 발표회를 교육청 대강당을 빌려서 실시하였다.

학기 초부터 다른 학교 돌봄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일 년 동안 발표회 준비를 하였다. 여러 곡의 합창을 준비하였고 학부모님들을 초대한 좌석은 차고 넘치는 가운데 돌봄교실 졸업생의 반주에 맞춰 세 학교 아이들의 하모니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신다. 아이들과 맞벌이로 지친 학부모님들께 추억의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나 또한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동행봉사자 수업

어울림 합창대회

이렇듯 우리 학교 돌봄교실에서는 친구들과 언니, 오빠 그리고 어르신들과의 어울림과 소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캠프 등도 소홀히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바뀐다. 어른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바뀐다. 어울림과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길 바란다. 어울림과 소통 속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기 바란다. 사람을 좋은 변화로 이끄는 수단이 교육인 것을 알지만 거기에 한서초 돌봄교실은 사랑을 더 보탠다.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돌봄'의 가치는 어울림과 소통의 실천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도 사람을 사람 되게 함에 돌봄의 가치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방과후학교 소식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목적 :** 방과후학교 강사의 업무역량 제고
- **내용**
  -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와 운영
  -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 학생·학부모·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사례
- **신청방법 :** 한국교원연수원 홈페이지 (www.hstudy.co.kr)
- **신청기간 및 연수기간**

기수	신청기간	연수기간	이수증출력일
3기	2017.5.17.(수)~5.24.(수)	2017.5.17.(수)~6. 6.(화)	2017.6. 7.(수)
4기	2017.6. 7.(수)~6.14.(수)	2017.6. 7.(수)~6.27.(화)	2017.6.28.(수)
5기	2017.6.28.(수)~7. 5.(수)	2017.6.28.(수)~7.18.(화)	2017.7.19.(수)

※ 연수는 총 11기에 걸쳐 진행되며, 각 기수의 연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방과후학교 이슈페이퍼 5종 발간(예정)

1. **미래교육에 대비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향** -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2.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중점 목표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배상훈(성균관대학교)
3. **ICT 활용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발전 방안** - 김진숙(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방안** - 김병주(서울교육대학교)
5. **지역사회연계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 임선하(서경대학교)

행사 결과 알림

2017 제1차 방과후학교 발전포럼 및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회

- **일시 :** 2017.4.25.(화), 13:00 ~ 4.26.(수), 13:00
- **장소 :** 더케이호텔서울
- **대상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 해당 자료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자료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알림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7월호 원고 모집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2014년 7월부터 웹진 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유관 기관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을 둔 학부모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2 모집 분야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자(전문가) 칼럼
2	현장 속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 소개,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3	돌봄교실 이야기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이용후기
4	방과후학교 소식	• 지역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행사 및 연수 안내

3 배포 대상

-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원고 집필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신청자 (교사, 강사, 학부모, 학생 등)

4 제출 방법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메인화면에서 뉴스레터 원고투고 신청

5 연락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전보미 연구원(jbomi@kedi.re.kr/043-5309-555)

6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319호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043-5309-555
copyright© 2015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